

스포츠동아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sportsdonga.com 10판



AG축구대표팀 임창우
첫골 쓰고 울먹인 사연
10면



상처 입은 조국에 희망을...
팔레스타인 축구 AG 첫승
3면



북한이 1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아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F조 중국과의 1차전에서 3-0 낙승을 거뒀다. 후반 1분 서경진의 추가골이 터진 뒤 기쁨을 나누고 있는 북한 선수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북한축구, 중국보다 강했다

중국에 3-0...조지력·득점루트 강력
간판공격수 박광룡 추가 합류도 관심

베일에 가려있던 북한남자축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윤정수 감독이 이끄는 북한이 1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아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F조) 1차전에서 심현진(축구 조별리그 1차전) (전반 9분)-서경진(후반 1분)-리혁철(후반 11분)의 릴레이골로 중국을 3-0으로 제압했다. 18일 파키스탄과 F조 최종전(화성종합경기타운)을 치를 북한은 중국을 완파함으로써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지축구의 전형

일찌감치 인천에 입성한 북한은 비공백 행보로 일관했다. 늘 그렇듯 훈련장을 봉쇄한 채 취재진의 접촉을 일체 불허했다. 훈련시간까지 바깥거리 노출을 최대한 차단한 만큼 북한의 전력은 큰 관심사였다.

투구를 열어본 결과 북한의 실력은 상당했다. 날카로운 공격과 세기에서 중국을 압도했다. 플레이는 투박했지만, 조직으로 잘 무장했다. 서현욱과 리혁철을 투입으로 내세운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선수 전원이 지역을 지키며 공간 차단에 주력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과감히 공격했다. 한 템포 빠른 전진과 짜임새 있는 패스로 중국을 괴롭혔다.

많은 슈팅수(23대7)만큼 득점 루트도 다양했다. 오른쪽 풀백 심현진의 첫 골은 감각적인 위치 선정이 돋보였고, 중앙 미드필더 서경진의 골은 아크 정면에서 날린 낮게 깔린 중거리 슈팅이었다. 리혁철의 득점은 서경진의 자로 쥔 듯한 후방 침투패스에서 비롯됐다. “공격과 수비가 철저히 협력해야 한다”는 윤 감독의 바람대로 북한의 조지축구가 빛났다.

●북한, 더 강해진다?

이날 경기에는 또 다른 화제도 있었다. 북한의 간판 공격수 박광룡(FC바두즈)의 출전 여부였다. 한국대표팀 박주호(마인츠)와 과거 스위스 프로축구 바젤FC에서 한솥밥을 먹은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소속팀 경기에 출전했기 때문이었다. 박광룡은 이날 새벽 상트 갈렌과의 스위스 슈퍼리그 홈경기(2-2)에서 풀타임을 뛰었다. 추후 합류할 예정인 박광룡은 4년 전 광저우대회 때도 북한의 8강 진출을 이끈 바 있다. 경기 후 윤 감독은 “우리도 우승을 위해 이곳에 왔다. 박광룡이 오면 공격이 강화돼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정상 도전을 다짐했다.
인천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th2357

김효주 명품스윙 ‘흐르는 강물처럼’

19세 소녀, 美 LPGA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역전 우승 비결

●스승 한연희 코치가 말하는 김효주 스윙

“몸에 딱 맞는 자연스러운 스윙
파워전달 잘 되고 실수도 적어
몸 이용한 ‘보디 턴’ 능력 탁월
정확성 뛰어나고 장타도 가능”



김효주가 15일(한국시간)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 6번홀에서 아이언샷을 한 뒤 볼의 궤적을 응시하고 있다. 김효주는 불과 19세에 LPGA 투어 메이저대회 패권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골프 여제’로 주목받고 있다.
에비앙-르뱅(프랑스) | AP뉴시스

함께 11언더파 273타...카리 웹 꺾고 정상

김효주(19·롯데)가 한국을 넘어 세계여자골프의 정상에 우뚝 섰다. 김효주는 15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르뱅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장(파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325만달러)에서 최종 합계 11언더파 273타로 베테랑 카리 웹(후주·10언더파 274타)을 꺾고 우승했다.

세계를 품은 19세 소녀골퍼 김효주의 무기는 다름 아닌 ‘명품 스윙’이다. 한 눈에 봐도 유연하고 리드미컬한 스윙은 골프로고수사에 나오는 정석 그대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의 스윙 배워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효주는 초등학교에도 입학하기도 전인 6세 때 골퍼에 입문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딸을 돌보기 어려워 골프연습장에 맡긴 것이 계기였다. 골프선수로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다. 지금의 스승인 한연희 코치(전 국가대표 코치)를 만나면서 김효주의 골프인생도 확 바뀌었다.

그렇다면 세계를 정복한 ‘김효주류 명품 스윙’의 비결은 무엇일까. 한 코치가 손꼽은 김효주 스윙의 가장 큰 장점은 ‘리드’이다. 무리하지 않고 강제로 만들지 않는 자연스러운 스윙이다. 에비앙-르뱅에 동행한 한 코치는



김효주가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트로피에 입을 맞추며 생애 첫 LPGA 투어 메이저대회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에비앙-르뱅(프랑스) | AP뉴시스

15일 스포츠동아와의 국제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효주의 몸과 힘이 맞는 스윙이다”고 말했다.

김효주의 스윙을 보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군더더기가 없고 어드레스부터 피니시까지 하나의 동작으로 움직이듯 자연스럽다. 한 코치는 “공을 똑바로 보내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몸에 맞는 스윙이다. 그래야 힘의 전달이 잘 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효주는 가장 완벽한 스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보디 턴’, 즉 몸을 잘 쓴다. 김효주는 공을 강하게 때리는 스윙이 아님에도 장타를 날린다. 유연함에서 강한 힘이 나온다. 드라이브 샷 평균거리의 약

260야드(KLPGA 투어 공식기록은 255.3야드)에 이른다.

거리뿐만이 아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몸을 주로 쓰는 스윙 덕분에 정확성도 뛰어나다. “몸 안에서 모든 스윙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몸을 잘 쓰고 임팩트 때 체중을 확실하게 실어 스윙에 꾸준한 거리와 정확한 샷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한 코치의 말이다.

●스윙은 95점, 퍼팅은 75점

완벽해 보이는 김효주의 ‘명품 스윙’이지만, 스승의 눈에는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남아있다. 한 코치는 “스윙은 95점, 퍼팅은 75점”이라고 인색한 점수를 줬다. “스윙은 나무랄 게 없지만 50~60야드 거리의 미들 어프로치와 퍼팅은 좀더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주는 이번 대회 1라운드를 제외하고 2~4라운드에서 퍼팅 실수가 많았다. 1라운드에선 퍼팅 수가 23개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라운드에선 퍼팅 29개(그린 주변 퍼팅 3개 별도)를 했고,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선 3퍼트를 4차례와 2차례씩 기록했다.

한 코치는 “스윙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은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퍼팅과 쇼트게임을 좀더 가다듬으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효주가 새로 쓴 기록들·얼마나 벌었나 2면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60세 넘어가면 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데
아직도 암보험이 없으시다고요?
왜?

상생보험협회 심의필 제2013-2694호 (2013.12.10) (COM-2013-11-17943)

암발병률 ↑
60세 이후 암 발병률 급격하게 증가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1)

60세 이상 10명중 8명 암보험 없어
(출처: 금융감독원 2009)

무배당 탄생! 고령자 전용 암보험 (갱신형)

꼭 필요한 100세 암보험

61~80세까지 가입가능! |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암보장!

상담에서 가입까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080-608-1010**
aiadirect.co.kr

10년 주기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보상금이나 사기 보상금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